

# 레미콘산업동향

〈한국레미콘공업협회 조사과〉

## 1. 1996년 1/4분기 건설경제동향

### 1) 국내 경제 동향

한국은행이 발표한 1/4분기국내총생산(실질 GDP) 자료에 의하면, 1996년 1/4분기중 국내총생산은 수출과 건설투자의 높은 신장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도 꾸준한 신장세를 보여 7.6%의 안정적인 성장률을 보인것으로 나타났다.

건설업은 단독주택을 중심으로 한 주거용건물 건설이 소폭증가에 그쳤으며 또한 기업의 설비투자 부진등으로 비주거용 건축도 업무용 빌딩을 중심으로 낮은 성장세를 보인 반면 사회간접자본 시설(인천국제공항, 경부고속철도, 전력시설등)에 대한 투자가 큰폭으로 확대되고 지난해 시설

〈표 1〉 건설업 성장률 추이(전년동기대비)

(단위 : %)

구분	기간	94년도		95년도				96년도
		1/4	1/4	2/4	3/4	4/4	연간	1/4분기
건설업		8.2	7.7	9.0	10.9	10.9	9.8	9.3
민간	합계	8.1	7.2	8.7	13.6	12.8	10.8	7.9
	주거용	5.8	-0.6	9.4	15.0	13.0	9.2	6.9
건설	비주거용	15.9	13.3	14.0	17.5	8.5	13.4	4.5
	토목	-0.6	20.5	1.6	11.0	20.7	13.2	20.0
정부건설		3.5	12.1	10.8	2.7	6.2	7.0	17.2

자료 : 한국은행 '1996년도 1/4분기 국내총생산' 참조

안전 점검등으로 부진을 보였던 지하철 건설이 활기를 띠는데다 학교건물, 도로, 상하수도 건설이 정부의 투자확대 및 예산의 조기집행등으로 크게 늘어나 전분기(10.9%)에 이어 9.3%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 2) 건축허가면적

건설교통부가 발표한 금년 1~4월 중 건축허가 동향 자료에 따르면 이기간중 전국에서 허가된 총 건축면적은 3천378만9천㎡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3천692만4천㎡에 비해 8.5%가 감소하였다. 이는 주택 뿐만 아니라 일반건축물의 건설경기도 전반적으로 부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용도별로 보면 가장 많은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공업용이 4월까지 총 379만8천㎡가 허가되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6.9%의 큰 감소추세를 보였다. 이는 지난해 아산현대자동차, 금산한국타이어등 대규모 공장의 신·증설과 설비투자가 활발했던데 비해 금년에는 대규모공장의 증설등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던점이 큰폭의 감소를 보인 것의 요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반적인 부진을 보인 주거용은 지난해 1천927만㎡ 보다 6.3%가 감소한 1천806만5천㎡에 달했으며 상업용 역시 전년동기 966만9천㎡에 비해 12.1%나 감소한 850만3천㎡가 허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허가면적의 전반적인 침체

속에서도 2월이후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2〉 건축허가면적현황

(단 위 : 천㎡, %)

구 분 기 간	합 계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문교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전년비	기타용	전년비
95. 1-4월	36,924	23.82	19,270	41.37	9,670	7.82	4,571	18.51	3,415	-1.49
1/4	25,533	16.20	13,741	35.93	6,844	5.26	2,990	1.42	1,959	-18.92
2/4	37,054	36.28	18,909	39.32	9,746	31.99	4,436	40.96	3,963	28.38
3/4	22,849	-25.63	11,763	-31.59	5,349	21.21	3,056	-17.43	2,682	-11.72
4/4	31,891	-12.23	18,201	-19.14	6,610	-3.16	3,245	-7.21	3,034	-13.31
96. 1-4월	33,789	-8.49	18,065	-6.25	8,503	-12.07	3,798	-16.91	3,422	0.20
1월	6,809	16.61	3,283	17.75	2,004	18.93	942	22.98	580	-3.33
2월	7,194	-4.04	3,726	-5.38	1,790	-16.86	946	17.66	732	21.59
3월	9,652	-20.87	5,587	-20.36	2,141	-28.78	797	-43.87	1,127	48.88
4월	10,134	-11.04	5,469	-1.09	2,568	-9.13	1,113	-29.60	983	-32.48

자료 : 건설교통부 도시주택국 건축과

〈표 3〉 국내건설공사 계약액 현황

(단 위 : 억원, %)

구 분	96년 1월	전년동월 증 감 율	96년 2월	전년동월 증 감 율	96년 3월	전년동월 증 감 율	96년 1/4	전년동월 증 감 율	
총 계약액	32,388	39.1	40,900	87.8	53,773	24.4	127,061	43.9	
공	합 계	12,560	195.2	16,631	171.9	21,347	124.0	50,538	153.9
	토 목	10,245	213.8	15,051	352.3	18,580	156.6	43,876	222.9
	건 축	2,315	133.8	1,580	-43.3	2,767	9.1	6,662	5.5
공	주거용	1,185	562.6	174	-60.1	681	-51.7	2,041	0.8
	비주거용	1,129	39.2	1,406	-40.2	2,086	85.1	4,621	7.7
민	합 계	19,828	4.2	24,269	54.9	32,426	-3.7	76,523	11.9
	토 목	1,953	10.1	2,113	71.5	4,708	168.9	8,774	84.4
	건 축	17,875	3.6	22,156	53.5	27,718	-13.2	67,749	6.5
간	주거용	8,577	-5.4	12,500	89.1	13,001	5.9	34,078	21.9
	비주거용	9,208	13.5	9,656	23.5	14,717	-25.2	33,671	-5.6

자료 : 대한건설협회, 상위 200개사 실적은 통계청 수치를 이용

### 3) 건설공사 계약액

대한건설협회가 발표한 최근 건설경제동향에

따르면 1/4분기중 국내건설공사계약액은 총12조 7천61억원에 달해 전년동기대비 43.9%가 증가하였다.

특히 공공 공사계약물량증 도로, 교량, 항만, 발전시설등 사회간접자본 확장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진 공공토목공사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22.9%의 높은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또 건설경기를 주도하고 있는 민간건축공사 물량의 경우 근린시설·업무용 빌딩등 비주거용의 전반적인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재건축을 포함한 도시지역 아파트신축물량이 늘어난 주거용이 전년동기대비 21.9%가 증가하여 전체적으로 6.5%의 증가세를 기록하였다.

## 2. 96년 1/4분기 레미콘 산업동향

96년 1/4분기에 레미콘은 전국 520개업체 662개공장에서 20,232,271m<sup>3</sup>를 생산하였다. 이에반해 전년같은 기간에 전국 498개사 611개공장에서 20,321,313m<sup>3</sup>를 생산하여 오히려 0.44%의 감소 추세를 보였으며, 전북과 부산·경남등 일부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지역에서 수요의 정체 혹은 감소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투자의 확대와 자본예산의 조기집행에도 불구하고 일반건축물을 포함한 주택경기의 부진과 기업의 대규모 설비투자의 기피등으로 인한 전반적인 건설경기가 둔화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전북지역이 관수물량의 폭발적인 증가의 영향으로 민·관수 포함하여 전년 861,481m<sup>3</sup>에 비해 8.55%가 증가한 935,164m<sup>3</sup>를 생산하여 전국에서 가장높은 레미콘 판매 증가율을 기록하였다. 그 다음으로 부산·경남지역 4.09%(4,109,302m<sup>3</sup>), 광주·전남지역이 3.09%(2,159,392m<sup>3</sup>)증가하였으며 서울·경인 지역은 관수물량의 지속적인 감소로 인하여 0.67%(7,360,019m<sup>3</sup>)의 소폭증가에 그쳤다. 그러나 이들지역을 제외한 제주 15.94%(244,999m<sup>3</sup>), 대구·경북지역 11.77%(2,568,681m<sup>3</sup>), 강원지역 3.58%, 충북지역 4.98%의 생산량감소를 나타내었다.

수요별로 레미콘생산을 구분하여 살펴보면 관

〈표 4〉 전국레미콘생산업체 현황

구분 지역	업체수	공장수	생산능력(B/P)		믹서트력(R/T)
			기 수	천m <sup>3</sup> /년	보유대수(대)
서울·경인	106	150	235	82,260	7,165
강 원	58	65	71	17,600	1,005
충 북	41	42	50	13,720	872
대전·충남	66	78	101	20,078	1,822
전 북	38	43	57	16,320	912
광주·전남	59	72	86	24,840	1,627
대구·부산	83	97	126	36,868	2,098
부산·경남	92	102	148	44,298	3,007
제 주	13	13	17	4,440	263
합 계	520	662	891	270,424	18,771

주 1) 전국 업체수는 지역 중복을 피한 수치임, 96. 3. 31현재  
2) 연간 생산능력은 년 250일, 1일 8시간 가동 기준임.

수는 전년동기 2,924,623m<sup>3</sup>대비 2.35% 증가한 2,993,281m<sup>3</sup>가 출하되었다. 97년 건설시장개방을 앞두고 지하철등 대규모 건설공사에 투입되는 레미콘을 턴키베이스로 전환하고있는 영향으로 관수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추세인 점에도 불구하고 관수가 증가한 것은 정부가 서울 및 부산·대구 지하철등 철도시설과 국도 및 고속도로의 확·포장, 항만, 공항, 전력시설등과 같은 SOC 관련 시설물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하였고 총선의 영향으로 각종 관공서, 병원, 학교건물등의 신축이 늘어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민수의 경우 17,238,990m<sup>3</sup>를 생산하여 전년 17,396,690m<sup>3</sup>대비 0.91%가 감소하였다. 이는 주택경기의 부진과 공장 및 상업용건물 등 비주거용건물 건설의 증가세가 현저하게 부진을 보인 결과라 하겠다.

지역별로 레미콘 생산량을 비교해보면 전북지역은 농로확장보수와 관계수로의 정비 그리고 수해대비시설공사등으로 관수물량이 전년 133,465m<sup>3</sup>대비 83.39%가 증가한 244,761m<sup>3</sup>를 생산하여 가장 큰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서울·경인 지역의 경우 민수는 수원영통지구, 부천·김포지역의 아파트공사와 서울변두리지역의 아파트 신축공

사 등을 중심으로 수요가 증가하여 전년동기대비 3.99%가 증가한 6,734,724m<sup>3</sup>를 출하하였다. 이에 반해 관수의 경우 지하철 물량의 감소와 주요 공공공사가 턴키베이스로 전환됨에 따라 전년동기대비 25.11%의 큰폭으로 감소하였다. 대전·충남지역은 송춘택지개발공사, 정수시설, 하수종말처리장등 공공공사의 영향으로 관수물량이 전년동기대비 31.74%의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나 민수의 경우 전반적인 주택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전년동기대비 2.25%가 감소하였다. 대구·경북지역은 지하철1호선공사의 마무리로 인한 물량의

감소와 전년에 비하여 전체적인 건설경기의 불황으로 민수는 전년동기대비 14.64%가 감소하였으며 관수는 1.62%증가하는데 그쳤다. 강원지역의 경우 국도 및 지방도로의 확장 및 보수 등을 중심으로 관수물량이 큰폭으로 증가하였으며 충북지역은 청주신공항건설공사의 물량증가와 95년수해복구사업의 마무리공사로 관수물량이 전년대비 22.5%의 높은 신장율을 보였으나 민수는 7.87%가 감소되었다. 제주지역은 전체적인 건설경기의 부진으로 민수와 관수출하가 각각 14.16%와 20.17%감소하는 부진을 보였다.

〈표 5〉 96년 1/4분기 지역별 레미콘 출하실적

지역	수요별	1996	1995	증감율 (%)
서울·경인	민수	6,734,724	6,476,147	3.99
	관수	625,295	834,950	-25.11
	계	7,360,019	7,311,097	0.67
강원	민수	437,648	469,220	-6.73
	관수	53,771	40,431	32.99
	계	491,419	509,651	-3.58
충북	민수	624,536	677,880	-7.87
	관수	87,271	71,241	22.50
	계	711,807	749,121	-4.98
대전·충남	민수	1,481,767	1,515,834	-2.25
	관수	170,121	129,129	31.74
	계	1,651,888	1,644,963	0.42
전북	민수	690,403	728,016	-5.17
	관수	244,761	133,465	83.39
	계	935,164	861,481	8.55
광주·전남	민수	1,753,466	1,671,864	4.88
	관수	405,926	422,830	-4.00
	계	2,159,392	2,094,694	3.09
대구·경북	민수	2,046,024	2,397,042	-14.64
	관수	522,257	513,907	1.62
	계	2,568,281	2,910,949	-11.77
부산·경남	민수	3,294,446	3,255,690	1.19
	관수	814,856	692,205	17.72
	계	4,109,302	3,947,895	4.09
제주	민수	175,976	204,997	-14.16
	관수	69,023	86,465	-20.17
	계	244,999	291,462	15.94
합계	민수	17,238,990	17,396,690	-0.91
	관수	2,993,281	2,924,623	2.35
	계	20,232,271	20,321,313	-0.44

우리나라 레미콘생산량에 따른 지역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서울·경인지역이 36.37%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부산·경남지역 20.31%, 대구·경북지역이 12.69%, 광주·전남지역이 10.67%로 나타났다. 서울·경인지역은 93년 이후 점유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음을 알수 있으며 그 외의 지역은 다소 점유비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지방 대도시를 중심으로 도로의 확장 및 보수와 지하철공사 그리고 기업들의 설비투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1/4분기 레미콘 생산에 있어서 특징은 관수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서울·경인지역과 제주, 광주·전남지역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서 관수 물량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이다. 이는 정부의 사회간접자본 시설에대한 적극적인 투자가 1/4분기에 집중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 3. 레미콘 수급실적 및 하반기 전망

96년도 당초 레미콘출하 계획은 5.5%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원자재 부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레미콘 출하 증가율은 1.5%수준에 머물것으로 전망된다.

### 4. 건설경기전망

한국은행 하반기 경제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4/4분기중의 생산 및 투자둔화추세가 금년1/4분

〈표 6〉 96년 레미콘 수급실적 및 수급전망

(단 위 : m³)

지역	구분	'96상반기	'95상반기	증감율 (%)	'96하반기 <sup>※</sup>	'95하반기	증감율 (%)	'96년계 <sup>※</sup>	'95년계	증감율 (%)
서울·경인		21,454,094	20,532,865	4.5	22,540,000	22,206,964	1.5	43,994,094	42,739,829	2.9
강 원		2,448,019	2,342,615	4.5	3,125,000	3,030,208	3.1	5,573,019	5,372,823	3.7
충 북		2,432,607	2,511,485	-3.1	2,967,000	2,853,387	4.0	5,399,607	5,364,872	0.6
대전·충남		5,384,288	4,898,828	9.9	5,658,000	5,524,018	2.4	11,042,288	10,422,846	5.9
전 북		2,753,164	2,585,935	6.5	2,723,000	2,685,235	1.4	5,476,164	5,271,170	3.9
광주·전남		5,083,492	4,992,191	1.8	5,161,000	5,158,909	0.0	10,244,492	10,151,100	0.9
대구·경북		6,111,981	7,332,472	-16.6	7,677,000	8,032,590	-4.4	13,788,981	15,365,062	-10.2
부산·경남		9,431,102	8,946,100	5.4	10,001,000	9,523,662	5.0	19,432,102	18,469,762	5.2
제주		670,199	746,829	-10.3	817,000	826,804	-1.2	1,487,199	1,573,633	-5.5
합 계		55,768,946	54,889,320	1.6	60,669,000	59,841,777	1.4	116,437,946	114,731,097	1.5

주. P는 잠정치, E는 예상숫자를 나타냄.

〈표 7〉 건설투자 동향 및 전망

(단 위 : 전년동기비, %)

	건설 투자	건물 건설	주거용	비주거용	토목 건설	기타건설	토지개발
1994	4.5	2.2	-0.4	5.7	8.1	7.4	12.5
1995 <sup>p</sup>	9.9	10.5	8.5	13.0	9.0	6.9	21.6
1996 <sup>f</sup>	7.9	3.2	1.1	5.6	15.4	15.7	14.1
95 Q1	7.6	5.3	-1.1	13.4	14.1	10.4	32.2
Q2	8.8	11.3	8.8	14.6	4.9	1.9	21.8
Q3	10.8	15.3	14.2	16.7	4.2	2.6	17.0
Q4	11.7	9.9	12.1	7.5	13.6	12.6	19.5
96 Q1 <sup>f</sup>	6.8	3.6	1.0	6.5	15.0	15.0	15.0
Q2 <sup>f</sup>	9.9	4.3	2.0	7.2	19.3	19.5	18.5
Q3 <sup>f</sup>	7.2	3.2	2.2	4.5	13.4	13.5	13.0
Q4 <sup>f</sup>	7.7	1.4	-1.0	4.3	14.4	15.0	11.0

주: 1. p는 잠정치, f는 전망치를 나타냄

2.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광장』 6월호 참조.

기중에도 계속 연장되고 있으나 하반기 잠재 성장율은 7%대 수준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요부문별로 보면 수출과 설비투자의 신장세가 둔화되면서 소비, 건설투자 등 내수부문의 성장 기여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며 건설투자는 사회간접자본투자가 호조를 보이고 주택건설도 회복세를 계속하여 전년동기대비 7-8%수준의

증가세가 예상되고 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의하면 금년도 건축허가 면적은 지난해보다 약 2.4%증가될 것으로 보이며 상반기에 감소추세를 보이다 하반기부터 비주거용 허가면적을 중심으로 증가추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인다. 전국의 미분양아파트가 전년 하반기 이후 계속 감소추세를 보이며 분양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 주택건설경기의 회복세가 예상되지만 전반적인 경기상승의 둔화로 재건축을 제외한 주택수요는 미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용도별로 살펴보면 주거용은 약 1.5%, 비주거용이 약 3.5%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또한 금년도 건설투자는 정부가 사회간접자본 투자에 적극성을 보이고 있고 주택경기도 재건축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지난해에 비해 약 7-8%의 증가가 예상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상반기에 비하여 증가세가 약간 감소세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년 하반기 이후 주택수요의 요인이 부재하고 금년 1/4분기부터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 건축허가면적을 고려하면 주거용 건설투자는 약 1.1%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전년대비 약 5.6%증가하고 토목건설은 작년 3/4분기부터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발주되고 있는 공공공사의 영향으

로 15.4%의 높은 증가가 예상된다.

## 5. 원자재수급동향

### 1. 시멘트

본격적으로 각종 공사가 활발하게 진행되는 가운데 96년 4월부터 호남등 일부지역에서 발생하던 시멘트부족이 96년5월이후 일부지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심각한 공급부족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96년5월말 현재 시멘트 재고량도 55.1만톤으로 전년동기96.4만톤에 비해 42.8% 감소하였다. 그 결과로 서울·경인지역의 경우 5월현재 1일수요량에 50-60%를 공급받고 있는 실정이며 호남지역은 5월이후 수요물량에 50-60%, 영남지역은 수요물량에 약60-70%정도를 공급받고 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4월이후 하루평균 시멘트수요는 19만3천여톤으로 지난해 같은기간 17만9천여톤에 비해 약8% 증가하였으나 공급은 하루 17만 6천여톤으로 매일 1만7천여톤의 재고물량을 소진하여 시멘트 재고량은 3월 1백39만톤에서 4월 84만톤, 5월 55만톤으로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이와 같이 올해들어 시멘트 공급부족현상이 심각해진 이유는 비수기인 95. 12-96. 1 까지 시멘

트 저장물량이 전년동기대비 18-20%정도 감소하여 재고물량의 확보가 원활하지 못하였으며 95년말현재 시멘트 유통사이로는 월평균 생산량인 460만톤에 비해 저장능력은 23% 수준인 106만톤에 불과하여 저장능력이 부족한 실정인데다 3월이후 토목부분을 중심으로 건설경기가 상승하여 시멘트소비가 급격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백두대간 문제와 관련되어 연간 540만톤을 생산해온 한라시멘트 옥계공장이 생산을 잠시 중단하였으며 광주·전남지역의 연간 시멘트소비량의 35% 이상을 공급해온 고려시멘트 장성공장이 지난 1월 郡측의 석회석 채취허가 기간 연장 불허조치로 공장가동이 장기간 중단하였었고 광양공장도 생산라인보수로 4월 말부터 생산 조업을 잠시 중단하였기 때문이다.

수입시멘트 역시 수입량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일본이 고베시의 지진사업복구사업등으로 내수가 증가하여 수출물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중국은 빠른 경제성장으로 시멘트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수출되는 시멘트양이 감소하고 있다. 또한 동남아시아 국가들도 빠른 경제성장에 따라 내수가 급증하여 수멘트 수입을 확대하고 있다. 이것을 계기로 일본과 중국이 수출가격을 인상하고 있어 수입물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정부가 현재 5. 27— 6. 30일까지 되어 있는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시멘트 수급동향에 따

〈표 8〉 시멘트 수급 동향

(단 위 : 천톤, %)

		1 월		2 월		3 월		4 월		5 월		1-5 월 계	
		수량	전년비	수량	전년비	수량	전년비	수량	전년비	수량	전년비	수량	전년비
공 급	생 산	3,369	1.4	2,997	5.8	4,441	-6.1	5,082	2.4	5,348	1.2	21,237	0.5
	수 입	129	57.3	142	89.3	232	74.4	244	25.7	301	21.9	1,048	43.4
	계	3,498	2.8	3,139	7.9	4,673	3.8	5,326	3.3	5,649	2.1	22,285	1.9
수 요	내 수	2,827	7.3	2,675	11.1	4,974	1.0	5,733	5.1	5,889	7.2	22,098	2.7
	수 출	90	2.3	119	1.7	94	59.3	71	-36.0	51	-32.0	425	-6.4
	계	2,917	7.2	2,794	10.7	506	1.7	5,804	4.3	5,940	6.7	22,523	2.5
재 고		1,442	-18.2	1,786	15.9	1,391	2.2	842	-16.2	551	-42.8	—	—

주 : 건설교통부 자료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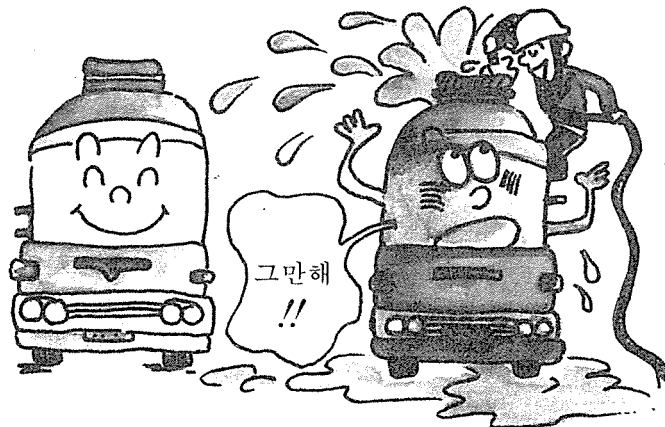
라 하반기에도 계속 적용여부를 검토하고 있으며, 시멘트 원재료인 석회석 채광중지 해제로 인한 한라시멘트의 정상가동과 고려시멘트가 법원으로부터 채광허가연장 승소판결로 정상조업이 가능해져 시멘트공급에 다소간 여유가 생길 것으로 보이나 실제 사용 할 수 있는 재고량을 감안하여 불 때 비수기인 장마철이 기후적 변수로 작용하지 않는한 시멘트 부족현상은 계속될 전망이다.

## 2. 골재

건설공사 성수기를 맞이하여 골재의 수요가 증

가하고 있으나 순조로운 허가공급과 원활한 채취 작업으로 대체적으로 안정적인 수급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96년도 5월초 현재 골재허가물량이 저년도 이월분 2,846만<sup>m</sup>과 금년도 골재허가공급량 18,828만<sup>m</sup>의 약 58%가 조기에 허가되었고 골재의 주요 수요처인 레미콘이 시멘트의 부족으로 출하가 둔화되었기 때문에 풀이된다. 지역별로 수도권은 원활한 수급을 보이고 있으며 충북지역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고 기타 영동, 영남, 호남지역은 원활한 수급을 보이고 있다.

공사현장에서의 레미콘에 대한 물타기(加水)는 콘크리트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므로 절대 금지한다.



그렇게 물을 많이 사용하면 배탈이 난다